

□ 제62차 理事會 개최

우리 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제6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大學敎育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내용, '93년도 국제교류활동 내용 및 계획, 기타 대학의 당면문제 등에 관해 협의하고, 대학평가인정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심의하였다. 對政府 건의를 위해 협의한 주요내용은 △대학재정의 획기적 지원 △학생선발 및 정원관리의 자율화 △대학평가체제 강화 △국립대학의 교직원 증원, 예산회계제도 개선, 교수연구보조비 증액, 시설·설비 확충 △교육대학에 교육대학원 설치 △개발대학 지원 △대학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이다.

□ 金泳三 대통령 초청 大學總長 오찬 간담회

우리 회원대학 총장 45명은 지난 3월 26일 오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초대받아 大學敎育 발전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나라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언제라도 기탄없이 직접 또는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국관련 제적생들의 복학 결정 및 최근의 대입부정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무리 교육여건이 어렵다해도 교육계의 不正과 非理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엄정한 學事관리와 대학의 敎育改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 우리 협의회가 청와대측에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학평가인정제의 정착을 통한 自律規制 강화 △대학 現場中心의 교육시책과 총장들의 의견반영 △財政難과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 △國立大學의 위기와 地方據點大學의 육성 △大學會館 건립운영에 관한 건의 △대학의 특성화와 產學協同지원 건의 △學事운영의 경직성 탈피와 小規模大學 육성

□ 韓國私立大學總學長協議會 창립총회

우리 협의회 산하에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지난 3월 26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전국 105개 사립대학 중 72개 대학 총장이 참석하여, 우리 협의회 17차 정기총회(2월 9일) 私立大學 分科別 모임에서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7인 준비위원회(3월 19일)와 대교협 사무처에서 마련한 會則(案)을 심의·수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식 출범을 보게 된 것이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족됨으로써 기왕의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함께 각각의 設立目的에 따른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와 긴밀한 共助體制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선출에서는 直選으로 민병천 동국대총장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부회장·총무·감사 등은 전형위원회(7인 준비위원)에서 선임·발표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호남지역 : 원광대총장, 부산·경남지역 : 경남대총장, 대구·경북지역 : 계명대총장, 충청지역 : 배재대총장, 경기·강원지역 : 강남대총장, 서울지역 : 한국외대, 중앙대, 성균관대총장, 여자대학 : 숙명여대총장, 신학대학 : 목원대총장 △총무—국민대총장 △감사—홍익대, 동덕여대총장

한편,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임원단 회의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여기서 발표된 사립대학의 현안과제와 주요 논의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원문제(정규선 숙명여대총장) △재정지원 확보문제(이면영 홍익대총장) △조세·행정규제 완화문제(현승일 국민대총장) △입시문제(김민하 중앙대총장) △대학정상화를 위한 법령개정문제(이강혁 한국외대총장) △대학간 협력문제(이성근 배재대총장)

□ 大學評價認定委員會 발족

우리 협의회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학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93년 4월 1일부터 대학평가인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대학평가의 정책과 사업방향을 獨

自的으로 심의·조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실제평가는 學界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대학, 정부, 산업체, 사회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委員長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지난 3월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조완규 전교육부장관, 부위원장에 이상주 울산대총장을 互選으로 선임하였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산업계·사회단체 대표 : 조완규, 조규하(전 경련 상임부회장), 황정현(한국경총 상임부회장), 이세중(대한변협 회장), 이칭수(KBS 해설위원장) △대학사회 대표 : 김중운(서울대총장), 최한선(전남대총장), 송자(연세대총장), 김호길(포항공대총장), 이성근(배재대총장) △평가전문가 : 하두봉(서울대 교수), 모혜정(이화여대 교수) △당연직위원 : 이천수(교육부차관), 장인숙(대학교육심의회 위원장), 이상주(대학평가연구위원회위원장), 구병림(대교협 사무총장)

□ '92 대학 物理學科 · 電子工學科 평가결과

우리 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92년도 대학 學科評價認定制에 의한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 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평가대상 : 전국 54개 물리학과 및 45개 전자공학과
- 평가영역 : 학과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경영·재정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학부, 대학원별 평가

○ 평가결과 발표의 원칙 : △각 學科別로 일정 수준 이상의 大學을 선정하여 이를 上位圈 大學으로 발표함 △上位圈 大學 중에서 학부의 평가 대항목별 점수가 우수한 대학 10개 내의를 선정하여 발표함. 단, 評價 大項目의 加重值가 너무 적은 '학과목표'와 '경영·재정'은 각각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와 통합함 △大學院은 총

점에 의해 上位圈 大學院 10개 내의를 선정하여 발표함 △學部의 경우 총점의 90% 이상을 취득한 大學을 상위권 대학으로 함 △이 上位圈 大學들 중에서 4個 領域別(학과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및 경영·재정)로 10개 내의의 대학을 선정함 △上位圈 大學院은 총점 순으로 10개 내의의 大學院을 선정함

○ 평가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評價基準의 特性 : '92 학과평가는 각 학과의 評價委員會가 개발한 評價基準을 바탕으로 실시됨. 따라서 모든 評價의 結果는 이 기준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함. 예를 들어 '學生' 영역의 경우 평가 기준이 통상적으로 이용되어 온 '入學生의 成績'이 아니고 학생선발의 적절성, 학생의 지도와 자치활동 및 복지의 우수성, 졸업생의 취업률 등이 評價基準으로 이용됨

△大學 自體評價의 자세 : '92 학과평가에서는 각 大學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自體評價를 실시하여 점수를 산출해 보도록 함. 그러나 이 자체평가 과정에서 일부 大學은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의도적인 上向評價를 실시한 반면, 또다른 大學은 정부와 재단의 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下向評價를 한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대학 자체평가 결과는 現地 訪問評價團의 현지방문 평가시에 최대한 조정하도록 노력하였음

△上位圈 大學의 意味 : 이번에 발표된 상위권 대학은 國際的 水準에서의 우수 대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國內 大學들 중에서 해당 학과의 教育과 研究 與件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뜻함. 한편, 다음 주기의 평가에서는 評價基準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

△이번에 上位圈 大學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과 1992년도에 평가를 받지 아니한 대학의 物理學科와 電子工學科는 2~3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임

○ 상위권대학 명단

(물리학과)

(가나다 순)

평가분야	대학명
총 결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서울), 경희대(수원),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용인), 한양대 (이상 20개교)
학과목표 및 교육과정	경북대, 경희대(수원),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울산대, 이화여대, 충북대, 포항공대 (이상 10개교)
학생영역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포항공대 (이상 10개교)
부교수영역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이상 10개교)
시설, 설비, 경영 및 재정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양대 (이상 10개교)
대학원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전북대, 포항공대 (이상 10개교)

(전자공학과)

(가나다 순)

평가분야	대학명
총 결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수원),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이상 17개교)
학과목표 및 교육과정	경북대, 단국대, 서울대, 중앙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이상 8개교)
학생영역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인하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이상 9개교)
부교수영역	건국대, 경희대(수원),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대, 인하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 (이상 10개교)
시설, 설비, 경영 및 재정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광운대, 단국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포항공대 (이상 10개교)
대학원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이상 10개교)

□ 民自黨 政策委員장단과 大學總長 대표와의 간담회

우리 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학총장 대표와 민자당 정책위의장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지난 3월 26일 청와대초청 오찬시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민자당측 정책위팀이 대학사회의 당면

과제와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는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민자당측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건의된 내용을 “달·중·장기 추진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삼목 제1정책조정실장은 “GNP 5% 수준으로의

교육비 확대는 체계적 연구를 요하는 만큼 협의 회측에서도 국·사립대학 보조방안 등에 관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도 “GNP 5% 수준 교육비 확대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히고, 특히 “사립대학 재정보조금 1,000억 원 지원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언급된 “교육관계법, 특히 私立學校法 改正 문제, 대학 運營制度和 밀접히 연관된 각종 법률안 및 대학직원노조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대학의 職員勞組에 관한 부분은 대학총장과 직원노조 간의 시각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표면화할 경우 커다란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제63차 理事會 개최

우리 협의회는 지난 4월 17일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63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민자당측에 제출할 政策建議資料(案)을 심의·수정하였다. 또한 최근의 입시부정사태와 실추된 大學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대학 스스로의 自淨努力의 일환으로 가칭 “大學倫理委員會”의 설치·구성을 결의하고, 명칭 및 기능 등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다음번 이사회에서 확정·발표키로 하였다. 입시부정 등 大學에 관련된 非理가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적생 復籍문제와 등록금 저항운동 및 교직원 보수 책정수준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이날 민자당측에 제출키 위해 심의·수정된 政策建議 내용을 소개한다.

△학생선발제도·대학정원관리의 단계적 자율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 △GNP 5% 수준 교육비 확보 및 대학교육예산 비중확대, 국·공립대학 교원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학 부총장제 확대, 교직원 증원, 예산회계제도 개선, 대학병원에 대한 국유재산 양여제도 개선 △사립

학교법 개정,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제도 개선,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범위확대, 실험실습용 등 교육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사립대학의 이자수입 과세제도 개선 △교육대학에 교육대학원 설치, 개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지원체계 정비, 개발제한구역 완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학교 사용 전기료 인하, 부가가치세 감면 검토, 대학회관 건립, 비수도권소재대학 및 여대졸업생 취업대책

□ '93 학년도 前半期 대학교수 國內交流 실시

우리 협의회는 지난 1월 '전반기 대학교수 국내교류' 지원서를 접수하여 연구지원 대상자 36명을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이 교류지원은 대학 조교수 이상을 대상으로 대학간 협력과 학문교류 증진, 대학의 균형 발전 유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협의회와의 연례사업이다. 23개 대학과 1개 연구소에서 총 36명이 지원한 전반기('93.3.1~'94.2.28) 교류 교수의 선정심사는 교류의 필요성, 연구계획서의 내용, 최근 5개년간 연구실적, 학위소지 상태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자를 교류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지방이 5명, 지방에서 수도권 22명, 지방에서 지방 8명이다. 학문분야별로는 인문사회 27명, 자연과학 8명이며, 교류유형별로는 파견 33명, 초빙 2명이다. 지원 연구비는 인문사회분야 300만 원, 자연과학분야 400만 원이다. 후반기('93.9.1~'94.8.31) 교류 교수 지원서 접수는 4월 30일 마감하였는데, 6월중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研究報告書 및 資料 발간

◎ 大學發展 10 個年 計劃(1992~2001)

우리 협의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연구와 각계에 대한 건의활동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활동지침이 될 2001년까지의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21세기를 대비한 대학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의

국의 대학교육 현황과 개혁동향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 △대학교육의 발전방안(10대 중점과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10개년 계획 △21세기 대학교육의 발전상 등이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의 발전방향과 지표, 그리고 연도별 소요재원 추정과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대학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평가시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자: 최정훈(연세대), 김윤태(서강대), 박도순(고려대), 이정근, 이화국, 김형근, 강경석, 김병주, 조석훈(이상 대교협).

○ '92학년도 大學敎員名簿

우리 협의회는 지난 4월 4년제 대학교수(전임강사 포함)의 주요 인적 사항을 수록한 교원 명부를 발간하였다. 각 대학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명부의 내용은 전국 141개 대학의 총장('93.3.1 기준)과 교수요원('92.10.1 기준)의 계열, 소속학과, 성명, 직급, 담당과목, 주민등록번호, 학위(출신학교, 학위종별), 최초임용일 등이다.

○ 현행 대학 총장선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이 연구는 대학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장선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 대학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어떤 선출제도를 택할 것인지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행 선출방식은 사립대의 경우 분석대상 62개 가운데 직선제가 31개 대학으로 절반이고, 옛 방식인 재단임명이 40%이며, 先재단임명 後교수회의 추인은 5% 미만이다. 국·공립대학은 분석대상 35개 대학 중 71%가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및 확정후 정부임명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타 대학은 교수직선후 정부임명을 택하고 있으나 직선질차는 대학마다 달랐다. 바람직한 총장선출방식으로 사립대의 경우 교수회의 직선과 재단임명제의 절충식을, 국립대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 정부임명방식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박재규(경남대총장), 이용남(전

남대 교육학과), 권기욱(대교협).

○ 국·공립대학 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대학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국·공립대학의 위상, 역할 및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정책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가를 분석하고 그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대학교육여건의 개념 △21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공립대학의 역할 △주요 외국의 대학교육 동향 △국·공립대학 교육여건의 실태와 문제점 △국·공립대학 교육여건의 개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등이다. 보고서는 중요한 개선안을 정책건의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연구자: 김종운(서울대 총장), 김수곤(전북대 총장), 김익동(경북대 총장), 오덕균(충남대 총장), 장혁표(부산대 총장), 정진영(서울대), 권기욱, 김병주, 조석훈(이상 대교협).

○ '92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결과 분석

이 연구는 '92학년도 전국 대학의 등록금 책정현황을 분석·정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학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더욱 합리적인 대학등록금 책정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등록금의 성격 및 변천 과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이며, 둘째는 등록금 책정결과의 분석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부와 석사 및 박사과정 등록금의 인상 개황, 인상률, 계열별 책정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91년도와 비교해 볼 때,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인상률 폭은 8.0~14.6%에 비해 약간 높은 10.7~14.6%이며, 계열간 차이도는 인문계열 기준으로 최고 1.50에서 1.49로 약간 줄었다. 사립대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의 인상률 폭은 '91학년도 15.6~16.4%에 비해 높은 15.7~18%이며, 계열간 차이도 역시 인문계열 기준으로 최고치가 1.41에서 1.44로 약간 늘어났다. 연구자: 박종렬(경북대), 김병주(대교협).